

기고

마약 범죄의 증가,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허정호 순천경찰서 경무과 경장



강남 학원가 일대에서 고등학생에게 마약류를 몰래 탄 음료를 제공하여 마시게 하고 학부모에게 휴대전화로 금품을 요구하며 협박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은 우리 사회에서 마약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로 커졌는지 보여주고 있다. 해외에서는 이미 팬타닐 등의 신종마약에 골머리다. 이러한 마약이 우리나라로 전파되어 아이들이 접할 가능성이 높아져 학부모들은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마약류 사범은 전국적으로 '21년에 10,626명, '22년에 12,387명 검거하였으며, 전남에서는 '21년에 232명, '22년에 344명을 검거하였다. 최근 5년간 마약류 사범 검거현황이 증가 추세인 것은 이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마약 문제에 대해 국민적인 관심을 가져야 하며, 더욱 적극적으로 예방과 대처에 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마약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일상 생활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첫째로,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마약의 위험성에 대해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둘째로 가족들은 자녀들의 호기심을 억누르기보다 마약의 위험성을 알리고, 소통을 통해 예방에 노력해야 한다. 셋째로, 타인이 주는 음료 등을 마시고 어지럼증을 느낀다면 즉각 신고해야 한다.

경찰은 갈수록 지능화해 가는 마약류 유통을 막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하고 수사역량을 총동원하여 마약류 유통·판매 조직을 뿌리 뽑기 위해 총력을 다하는 중이다.

마약을 절대적으로 거부하고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절실히 필요하다.

외부 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생활정보전화

긴급전화

▲아주여성긴급전화	1577-1366	▲기상예보	131
▲응급질병상담	1399	▲법률구조상담	132
▲미아·가출인신고	182	▲인광알코올상담센터	222-5666
▲여성 긴급전화	1366	▲광주 남성의전화	673-9001
▲청소년상담지원센터	1388	▲광주 여성의전화	363-7739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수도고장신고	121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전기고장신고	123
▲응급의료센터	1399	▲가스사고신고	383-0019

호남신문 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광주 서구 운천로 213 스카이랜드 309호

발행인·편집인 최정현 편집국장 직무대리 서선옥

동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유동3길 26 서주빌딩 101호 (061) 905-2011

서울취재본부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62가길 16-1 (02) 2238-0003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적용 (062) 228-2580 팩스 (062) 222-5547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연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mpn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과학의 달과 과학의 날

정기연 전 영암 신북초등학교 교장

4월은 과학의 달이며, 4월 21일은 제56회 과학의 날이다.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나라는 원자재를 수입해 기술집약적인 제품을 만들어 가공무역으로 살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진과학기술이 없는 살길이 막막하다. 코로나19 감염으로 전 세계의 과학 관심은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치료백신 발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4월 21일을 과학의 날로 정해진 배경은 정부에서 국민에게 과학에 대한 관심을 두게 하고 과학 발전과 과학적인 생활 태도를 형성시키기 위해 1967년 4월 21일 설립된 전 과학기술부 1주년을 맞아 1968년 4월 21일부터 과학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있었는데, 1973년 3월 30일 제정 공표한 각종 기념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4월 21일이 과학의 날로 확정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1968년부터 과학기술의 지향점과 개발전략을 설정하고 과학 기술 장기종합 계획을 수립하여 영국 독일 일본의 과학 기술 수준까지 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 과학기술연구원(KIST), 한국 기술정보센터(KORSTIC), 한국 과학원(KASS)을 비롯한 한국 과학기술재단, 한국 과학기술진흥원 한국 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등 수많은 기관이 과학기술 업무를 분담하는 등 과학의 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조치가 마련되고 있다. 과학의 날 주관부처는 전 과학기술부이지만 행사는 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가 주관하며 해마다 과학 연구에 실적이 있는 사람을 선발해 표창하고 있다.

우리는 평소와 과학적인 생활 태도로 불편한 점을 고쳐 나가야겠다고 생각하고 실천하는데 과학의 날의 의미가 있다. 과학의 날은 과학기술의 중요성도 강조하고 모든 국민 생활의 과학화를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올해 과학의 달 과학의 날 행사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각급 학교가 개학을 못 하고 온라인 수업 진행 중에 맞이하게 되었다.

각 학교에서는 발명품전시회, 글짓기, 모형 항공기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를 하고 학교에서 선발된 과학 꿈나무 학생을 선발하여 표창과 시상을 하리라고 본다. 그런데 해마다 선발되어 표창하는 과학 꿈나무 학생들의 후속 지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학생들이 소질과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후속 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

선발된 학생들은 과학에 대해 꿈과 희망을 품고 있을 것이라 보는데 이에 대한 후속 지도가 있다면, 이는 심은 나무를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손질하고 가꾸는 것처럼 과학 꿈나무들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각계 분야로 진출하여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해마다 전국 과학전람회, 전국 발명품전시회에서 우수한 작품이 발표되고 있고 세계 기능 올림픽에서도 한국 대표가 연속 최고상을 받는 것은 우리 민족의 창의력이 그 어느 민족보다도 뛰어남을 보여주고 있다. 과학의 달을 맞이하여 과학기술인 양성을 위해 나무를 심고 가꾸는 마음으로 과학 꿈나무들을 찾아 가꾸는 정성을 기울였으면 한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국가경쟁력이 높아져 무역에서 세계 선진국 위치에 서게 된 것은 역대 정부가 과학기술 개발 교육에 힘쓴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우수한 발명도 하찮은 기초 과학에서 비롯된다는 선례를 거울삼아 우리 생활 주변에서 관심을 두고 본다면 발명의 주제는 많이 있다고 본다. 발명은 생활 주변의 불편한 점을 편리하게 하려고 불편한 것은 빼고 편리한 것을 찾아 더하는 절차를 거쳐 발명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과학 선진국이 되려면 과학기술 개발과 연구가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선진화되어야 하는데, 각 학교에서는 과학실을, 각 기업체는 신제품개발을 위한 연구실을, 직장에서도 발명 과학 코너 설치하고 언제든지 착안한 아이디어를 발표하고 그것이 개발되고 활용될 수 있게 했으면 한다.

정부에서는 과학연구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국가적 지원 대책을 세우고 추진해서 연구개발을 위한 시설 여건 조성에 힘을 기울여 세계의 과학자들이 과학연구를 하기 위해 우리나라로 모여드는 나라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과학의 달을 맞이하여 과학기술의 연구 개발과, 과학기술 인재 육성은 우리나라가 선진화되는 데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우선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고 과학교육 내실화에 힘써야 할 것이다.

기고

부부싸움 또한 아동학대가 될 수 있습니다

변인석 강진경찰서 경무과 순경



제를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들이 서로 다툰 때, 그들이 아이들에게 폭력을 행사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부부간의 갈등을 조심해야 합니다. 먼저, 갈등을 노골적으로 표현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면, 서로 다른 시각을 존중하며 대화하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러한 갈등이 아이들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부모들은 아이들 앞에서 서로를 존중하며 대화하고, 아이들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부부싸움이 아동학대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가정 내에서는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며, 갈등을 해결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아동학대는 큰 문제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부모들의 싸움입니다. 부모들이 서로 갈등을 느끼고,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아이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부부싸움이 아동학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부부간의 갈등을 조심해야 합니다.

부부싸움이 아동학대로 이어지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첫째로, 부모들이 서로 맞서 싸움을 하면서 아이들이 그것을 지켜보게 됩니다. 이때 아이들은 두 부모 중 하나를 떠나야 하는 상황에서 선택을 하지 못하고, 그저 스트레스와 불안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는 정서적인 아동학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로, 부모들의 갈등이 가정 내 분위기를 악화시킵니다. 그 결과, 아이들은 스트레스와 불안을 느끼게 되고, 이로 인해 다양한 신체적, 정신적 건강 문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행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